

친일 작가 작품 논란 '남원 춘향영정' 교체

시 "공론화 거쳐 교체 시기 연내 결정"

남원 공한루원 춘향사당에 걸려있는 '춘향 영정'이 교체된다. 남원시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친일작가 작품 교체를 수용한 결정이다. 다만, 교체 시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입장이다.

1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춘향사당의 춘향 영정 교체는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행할 방침이다.

춘향 영정은 1939년 김은호 화백이 그렸다가 6·25전쟁 때 훼손되자 김 화백이 1961년 다시 제작한 실물 크기의 복사본이다.

김 화백은 친일 활동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등재된 인물로서 그동안 영정을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교체라는 큰 틀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어떤 작품으로 교체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는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영정 교체는 해를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그동안 대안으로 거론됐던 강주수 화백의 작품이 아닌, 제3의 영정을 새로 그리는 방안을 선택한다면 시간은 더욱 늦춰지게 된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우선 작품을 떼어낸 이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교체 운동을 주도해온 강경식 남원정신연구원 위원장은 "남원은 왜적과 싸우다 소멸한 1만여명을 모신 만인의총이 있는 고장"이라며 "단 하루도 친일작가의 작품을 걸어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잔존하는 친일파 세력의 영향력 때문



남원 춘향사당의 '춘향 영정'.

에 수십 년 동안 춘향 영정을 교체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다"면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신재생에너지 본격 사업...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출범

시 100억 출자 태양광·해상풍력 사업 추진...이익 시민과 공유

새만금 육·수상 태양광발전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공식 출범했다.

1일 군산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분야 군산시 첫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이날 조준동에 사무실을 마련해 업무를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이날 현판식은 최소 인원만 참석, 조촐하게 개최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초기자본 100억원을 전액 출자한 군산시 신재생에너지 출자기관이다.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내의 육·수상 태양광발전 사업,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시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

지난해 설립 타당성 용역과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 선정과 설립 등기, 행정안전부 지정고시를 마쳐 회사를 설립했다.

대표이사는 서지만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이 맡았다. 서 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군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성공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어려운 지역

경제 회복과 에너지자립도시 군산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 발표에 힘입어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생태계 육성이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며 "역점 시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정식 출범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축하했다. 강 시장은 "군산시는 민선7기의 가장 큰 가치인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함께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1일 공식 출범했다.

<군산시 제공>

익산시, 다목적체육관·테니스공원 등 4개 체육시설 건립

425억 투입 체육인프라 확충 시민 건강증진·삶의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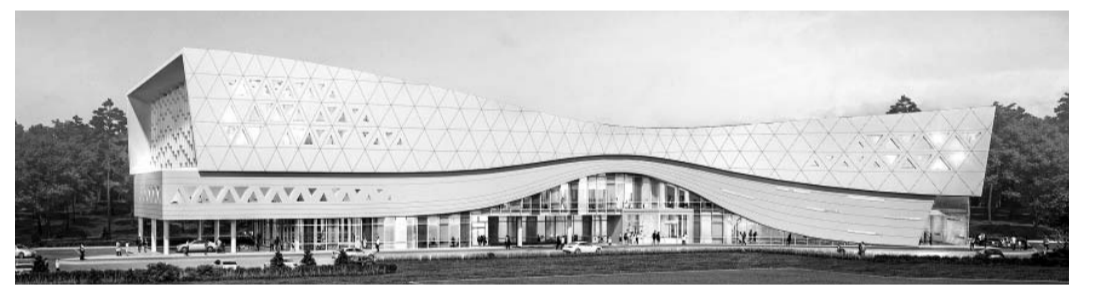
익산시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익산시는 국비 138억원 등 총사업비 425억원을 투입해 다목적체육관, 테니스공원, 장애인체육센터, 실내야구연습장 등 4개 체육시설을 건립한다고 1일 밝혔다.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은 124억5000만원을 들여 모현동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719㎡ 규모로 조성한다. 수영장(25m×6레인), 체육관, 체력단련장, 노인운동시설 등을 갖춰 내년 1월 준공한다.

테니스공원은 마동 솔리예술회관 인근 3만6065㎡ 부지에 실의 8면, 실내 4면 등 총 12면 규모의 테니스장을 갖춘다. 136억7000만원이 투입되며 연말에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한다.

장애인체육센터는 익산종합운동장 인근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5250㎡ 규모로 건립한다. 장애인 수중운동실,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장, 펜싱 연습장 등으로 구성된다. 예산은 125억원이 투입되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위)과 반다비 장애인체육센터 조감도.

며 올해 말 착공해 2022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내 야구연습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39억원을 투입해 익산종합운동장 내 야구장 인근에 지상 1층, 연면적 2100㎡ 규모로 건립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공

모사업에 선정돼 190억원 가량의 국비와 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다양한 체육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j@kwangju.co.kr

정읍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박차

2023년까지 403억원 투입

정읍시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생활을 위한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정읍시는 올해 총사업비 329억원을 들여 재해 우려가 있는 용·배수로와 취입보 등 수리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용·배수로 55.0km에 113억원, 농로 89.0km에 104억원, 단풍미인 쌀 생산단지 32km에 76억원, 기계화 경작로 25.0km에 36억원을 투입해 재해 예방,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읍 쌀 브랜드까지 향상과 영농여건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총 403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단풍미인 쌀 생산단지를 정비한다.



2020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농업생산 기반 사업은 지난 2월에 착수해 현재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정읍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농업 경쟁력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농촌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Modern

클래식 스타일 Classic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